

## 9,10 월 선교 편지(2024 년)

어느듯 2024 년도 두달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9 월에 케냐에서 돌아와 한 주일 쉬고 한국으로 가서 10 월 말까지 지내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나간 이유는 한국에서 다민족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에는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여러 방면으로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그들이 한국화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미국에 이민온지 50 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삶의 터전을 주었고,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국인이 한국 시민이 되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고 배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저희에게 이민자의 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케냐 사역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살펴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명기 10 장 18-19 절)

마투 사역

마투에서는 9 월 중순에 유 진 선교사님께서 작년에 훈련은 마쳤지만, 졸업식을 하지 못한 우간다 학생들을 위해서 우간다에 가서서 이번에 훈련을 마친 학생들과 함께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간다 사역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9 월 마지막 주일에는 마투에서 어린이 교회의 지도자인 Priscilla LeFebvrier 가 마투 사역의 동역자인 By Grace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10 월 8 일 By Grace 교단의 Kivuba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오랜 지병으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늘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던 사모님의 따뜻한 미소가 생각납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은 공동체에서 기르던 암소가 새끼를 놓고 몇일 지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수의사 말로는 풍토병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새끼를 낳아 주어서 감사하였는데, 엄마소는 죽고 아기 소는 살았다고 합니다. 엄마 젖을 먹지 못해서 우유를 사서 먹인다고 합니다. 엄마 소대신 잘 살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졸업식)



(Priscilla 목사 안수식)

### 동두천 대안학교(Amerasian Christian Academy)

동두천 대안학교는 James Kang (강영철)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세운 학교로 다민족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입니다. 약 14개국에서 60여명의 학생들이 1학년 부터 12학년까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되시는 James Kang 선생님은 자신이 혼혈아로 성장하여서 미국에와서 교육받으시고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다민족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수많은 졸업생들을 미국대학에 입학시켜서 학업을 계속하고 졸업 후에 직장 생활과 학교로 돌아와 선생으로 헌신하는 학교입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에 미국대학에 입학하여 어려움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6명의 탈북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헌신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James Kang 대표와 함께)

(학생들 수업 현장)



### 민들래 공동체와 오두막 공동체 방문

산청에 있는 민들래 공동체(김인수 대표)는 작년에 케냐를 방문하신 윤미옥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기독교 공동체로 누구나 일 하면서 섬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와서 지내는 곳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김해영 선교사님과 저희 부부 그리고 김학철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도 돌아보고 섬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들래 공동체에서 약 한 시간쯤 떨어진 합천의 오두막 공동체(대표 이영재 장로)도 방문하여 그 곳 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두막

공동체는 40년이 넘는 공동체로 합천으로 옮기신지는 약 20년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 곳은 소외되신 분들(특별히 재소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들어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힘들테인데,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해 주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며 섬기며 협력하는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였습니다.

올해에는 단풍이 늦게 들어서 지리산의 단풍은 구경하지 못 하고 서울로 귀가하였습니다. 맑은 공기와 한국 산천의 아름다움으로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저의 60년지기 친구가 한국 C&MA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안수식에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도편지에서 AMANI 음악학교에 관하여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책임자를 찾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케냐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이복음 목사님과 이인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여건이 잘 해결되어 케냐로 오실 수 있도록.



(민들레 공동체 식구들과함께)

(오두막 공동체 이영재 장로님부부)

### 기도 제목

1. 안수받은 Priscilla 목사가 Agape 어린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2. 현재 공사중인 모든 Project 들이 잘 마무리 잘 되도록(돼지 사역, 바나나 Tree 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새로 태어난 아기 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3. 어린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의 훈련을 위해서
4. 세례 문답 교육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5. 계속해서 탄자니아, 우간다와 이웃 나라들(브룬디, 콩고, 르완다)에 학사 사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6. 2025 년도에 시작할 초등학교를 위해서
7. 케냐로 오실 이복음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사모님과 두 자녀가 있습니다).
8. 장인, 장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9. 케냐에서의 안전과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양재주/ 양선숙 선교사 드림

후원하실 분들은:

Pay to: SEED USA Ministry Inc

Memo: 선교사 이름(양재주/선숙)

Address(주소): P.O. Box 847 La Mirada, CA 90637